

평가에서의 負的 情報優越 效果에 관한 傾斜差異 模型

洪 大 植

全北大學校 心理學科

평가에서의 負的 情報優越效果에 관한 경사차이모형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P-O-Q의 삼원적 상황들에서의 빠진 관계들의 완성의 맥락에서 검증되었다. 일반적으로, 부정 P/O관계와 태도와 부호의 불일치들이 정적 P/O관계와 태도와 부호의 일치들보다도 더 큰 경사를 보일 것이라는 假說은 지지되었다. 부정 관계들이나 특성들의 영향이나 경사는 正的 加速 곡선들을 보이는 반면에 정적 관계들이나 특성들의 영향이나 경사는 일차함수적 일 것이라는 것이 시사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負的 性質의 정도들 보다는 正的 性質의 정도들에 더 큰 주의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시사되었다. 자료는 정적 P/O관계와 태도와 부호의 일치들의 균형으로 향한 힘들은 부정 P/O관계와 태도와 부호의 불일치들의 균형으로 향한 힘들 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보였다.

사회적 판단에서, 사람들은 正的 特性들보다도 負的 特性들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이 많은 경험적 발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負的 優越效果(negativity effect)는 지금까지의 心理的 現象에 관한 가정, 즉, 心理的 判斷에 대한 수학적인 兩極의 동간척도의 가정에 커다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負的 優越效果는 대부분의 社會心理學 理論들에서 간과되어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 Kanouse와 Hanson(1972)은 負的 情報優越效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과 그에 대한 몇가지 설명들을 評論하여, 이 分野의 연구에 대한 기초를 다져 놓은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 우월효과에 대한 실험적 증거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하고, 이

를 기초로 해서 正의 情報과 負의 情報 사이의 社會的 判斷 差異를 설명할 수 있는 模型을 설정하고, 이 模型을 검증하기 위한 몇가지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負의 情報優越效果에 관한 經驗的 證據

負의 情報優越效果에 관한 증거는 Miller(1944, 1959)의 接近과 迴避 갈등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동물이 正的 및 負의 속성들을 모두 지닌 하나의 목표에 접근할 경우에는 목표에 가까울수록 접근과 회피의 경향이 모두 증가되지만, 회피 경향이 더 신속한 속도로 증가된다는 결과들을 얻었다. 그는 이러한 증거에서 접근과 회피의 傾斜(gradient)가 다르다고 가정하였다.

社會心理學 研究들에서 負의 情報優越效果가 분명하게 제시된 연구 분야는 정보의 제시를 통한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Anderson(1965)은 인물형용사의 호오도의 평가치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범위의 4 種類의 형용사들을 2 개씩 및 4 개씩 組로 만들어서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인물의 전반적 인상(好惡)을 평정케 하였다. 그 결과, 정적 정보와 부정 정보의 영향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5 조건 중에서 4 조건이 부정 우월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정 형용사들의 組가 정적 형용사들의 組보다도 호오평정에 더 큰 변화를 보였다.

Feldman(1966)은 正的 및 負的인 인물형용사들을 두개씩 組를 만들어 제시한 것과 별개로 제시한 것 사이의 평가 차이를 계산하여 각 형용사들의 평가에 대한 변용능력들(modifying capabilities)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부정 형용사들의 변용능력은 정적 형용사들의 변용능력보다도 훨씬 더 컸으며, 형용사의 평가(好惡)와 변용능력사이의 상관은 -0.69 로 나타나서 평가가 負의일수록 변용능력이 더 컸음을 나타냈다. 이와 비슷하게, Rokeach(1968)는 정적 개념과 부정 개념을 연결시킨 인물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9개의 조합 중 8 개에서 전반적 평가는 두개의 별개의 개념들의 척도가들의 평균에 의해서 예언된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負의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공호(1974, 1976)의 연구에서도 대상인물을 행동기술문장을 사용하거나 인물형용사를 사용하거나 好惡判斷에서 負의 情報優越 현

상을 발견하였다.

한편, Birnbaum(1972)은 정적 및 부적 행동문항들을 雙으로 만들어서 피험자들에게 그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는 두 행위 중에서 負的인 행위가 그 雙의 전반적 평가를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적인 행위는 부적행위에 의해서 평가가 크게 감소된 반면에, 부적행위는 정적인 행위에 의해서 평가가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또한, 인상변화에 관한 연구들(Hodges, 1974; Warr, 1974)에서는 부적 인상보다도 정적 인상을 변화시키기가 더 용이하였으며, 평가에 대한 자신감에 관한 한 연구(Hamilton과 Zanna, 1972)에서는 피험자들이 정적 특성들에 기초된 평가보다도 부적 특성들에 기초된 평가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졌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인상형성이나 대인적 판단에서의 부적 정보우월효과는 他人들에 대한 평가의 추리나 귀인에서도 나타났다. Abelson과 Kanouse(1966)는 피험자들에게 어떤 특수한 대상의 속성들에 대한 어떤 행위자의 태도를 기술해 주고, 그 행위자의 그 대상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추리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의 결과는 매우 강한 부적 정보우월효과를 나타냈다. 즉, 행위자가 대상의 세계의 속성 중에서 두개에 정적 태도를 가졌을 때에는 22%의 경우에서 그 대상에 대한 정적 태도를 추리한 반면에, 두개에 부적 태도를 가졌을 때에는 67%의 경우에서 부적 태도를 추리하였다.

부적 정보우월효과는 모험하기(risk taking)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ogan과 Wallach(1967)는 12개의 인생 딜렘마(life dilemama)들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두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케 하였다. 그 결과는 잠재적 부담(costs)이 잠재적 이득(gains)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Rettig와 Rawson(1963)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피험자들에게 도덕적 행동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이득의 強化價보다도 비난의 強化價가 행동 판단의 훨씬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판단 대신에, 피험자들에게 실제의 위반 기회를 제공한 Rettig와 Pasamanick(1963)과 Rettig와 Sinha(1966)의 연구에서도 이득의 강화가 보다도 비난의 강화가 실제의 비윤리적 행

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었음을 보였다.

모험하기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도박연구들(gambling studies)도 부정적 정보우월효과를 보이고 있다. Atthowe(1960)은 피험자들에게 놀음의 잃을 금액의 양과 딸 금액의 양을 변화시켜서 실험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반적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 이득이 측면보다도 부담의 측면에 더 강조를 두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yers, Reilly와 Taub(1961)와 Katz(1964)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Slovic과 Lichtenstein(1968)은 “잠재적 손실은 동일한 크기의 잠재적 이득보다도 도박의 매력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p. 9-10)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들 결과들로부터 유용성 곡선들은 이득(gain)에 대해서 보다도 손실(loss)에 대해서 더 경사가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正的 및 負的 情報에 대한 반응들의 차이는 情報에 대한 접촉이나 탐색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홍대식(1971)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자신의 기대와 차이가 있는 부조화를 일으키는 負的인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지지하거나 반대되는 정보항목에 대한 자신의 흥미를 평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자신의 기대와 부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던 집단들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관련있는 負的인 정보를 유의하게 회피한 반면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관련있는 正的인 정보에 대해서는 접촉이나 회피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촉 반응에서도 적어도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는 부정적 정보우월효과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태도 구조에 관한 분석을 한 Kaplan(1972)은 다양한 실제의 태도 대상들에 대해서 正的인 태도와 負的인 태도를 별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태도 측정치들 사이의 평균 상관은 .05로서 유의없는 상관을 얻었다. Miscovici(1963)는 태도 연구에 관한 평론에서 정적 태도들에 비해서 부정적 태도들이 일관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더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Jones(1969, 1971), Sherif와 Hovland(1961) 및 Sherif와 Sherif(1969)도 정적 및 부정적 태도들이나 심적 자세(set)들 사이의 가능한 차이들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Jordan(1965)은 태도의 正·負 模型에 비평을 가하고 好感과 惡感은 대칭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암시하였다.

Heider (1958)의 均衡理論에 關係해서, 홍대식(1980a)은 삼원관계에서 대상(X)과 他人(O)에 대한 호오의 정도를 변화시켜서, 균형이론을 확장시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여러 자료에서 負的인 관계나 태도 不一致의 狀況에서는 正的인 관계나 태도 一致의 狀況에서 보다도 他人과 對象의 好惡強度에 따른 差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홍대식(1980b)은 선행 연구에서 他人에 대한 好와 惡의 강도 차이를 발견치 못한 점을 실험조작의 미약성에 기인된다고 보고, 他人에 대한 호와 오의 정도를 4가지로 세분하여 삼원적 상황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상황의 유쾌도 평정에서는 差異가 없었으나 安定度 평정에서는 負的 關係가 正的 關係보다도 영향이 더 컸다. 그 후에 김지환(1982)은 인물형용사를 사용해서 지각자(P)와 他人(O) 사이의 正과 負의 관계를 동일한 간격의 관계로 만들고, 正·負 關係가 삼원적 관계의 상황에 대한 愉快度 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結果, 愉快度 평정에서 홍대식(1980b)의 연구와는 달리 正的 關係보다도 負的 關係의 영향이 더 컸다.

위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關係해서, 홍대식(1982)은 三元的 關係의 상황들에서 정적 및 부적 강도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균형이론들에서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에 동일한 무게를 둔, 관계들의 積(product)에 의한 균형과 불균형의 정의(예 ; Cartwright와 Harary, 1956 ; Feather, 1966, 1967 ; Newcomb, 1968 ; Wellens와 Thistlethwaite, 1971a, 1971b ; Wiest, 1965)의 부적절성을 나타내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요약하면, 동물의 接近과 迴避 행동, 인상형성과 변화, 타인의 태도에 대한 추리, 모험하기(risk taling), 정보에 대한 접촉, 태도의 구조 및 인지적 균형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부적 속성이나 정보가 정적 속성이나 정보보다도 더 큰 무게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행동 예언에 있어서 대상들의 정적 속성들과 부적 속성들을 분리시켜서 취급해야만 된다.

이하에서는 인간의 행동, 특히 평가 반응을 예언하기 위한 모형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대상들의 정적 속성들과 부적 속성들의 比重이나 경사의 차이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2) 評價에 관한 경사 차이 模型

심리학이론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R)은 어떤 특정 자극(S)의 함수라고 보고 있다. 즉,

$$R = kS$$

여기에서 k는 어떤 자극(S)의 속성과 반응(R)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경험적 常數나 무게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사회심리학 이론들에서도 마찬가지로 採擇되어지고 있다. Fishbein(1963)의 累加模型(additive or summative model)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나 평가(E_o)는 다음과 같은 公式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

$$E_o = \sum_{i=1}^N k_i V_i$$

여기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E_o)는 그 대상이 갖는 속성들의 가치(V_i)에다가 그 대상의 무게(k_i)나 확율을 곱해서 합계한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다. 한편 Anderson(1965)의 정보통합에 관한 평균모형에서는 최종 평가 E_o는 다음과 같은 公式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

$$E_o = \frac{\sum_{i=1}^N k_i V_i}{\sum_{i=1}^N k_i}$$

여기에서 V_i는 앞의 Fishbein(1963)의 공식에서와 같이, 어떤 대상 0에 대한 척도가를 의미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두가지 사회심리학적 모형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E_o)가 그 대상이 갖는 속성들의 가치(V)가 합계되어지느냐, 아니면 평균되어지느냐에 의존되는 여부가 다를 뿐이며, 자극에 대한 평가(E_o)가 대상의 속성(V_i)에 의존된다는 데에는 일치되고 있다. 즉, 이들 모형은 처음에 제시된 반응에 관한 심리학의 일반공식, 즉, R = kS로 수렴되어지고 있다. 환언하면, Fishbein(1963)과 Anderson(1965)의 공식들에서 어떤 대상이 한개의 속성만을 갖고 있다면, 심리학의 일반공식으로 다시 환원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회심리학적 모형들을 단일한 속성만을 고려해서 단순화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公式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E_o = kS \dots\dots\dots (1)$$

즉, 어떤 대상(O)에 대한 평가(E_o)는 만일에 그 대상이 단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자극속성(S)의 함수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앞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E_o)는 심리적인 영(霧)점을 고려해서 정적(positive)인 평가와 부정(negative) 평가를 분리시켜서 예언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식(1)을 다시 세분해서 정적인 대상에 대한 평가를 예언하는 공식과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평가를 예언하는 공식으로 분할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_p = k_p S_p \dots\dots\do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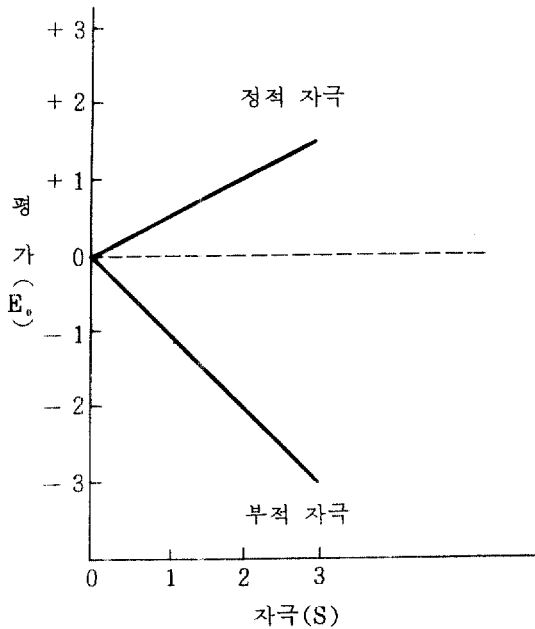
$$E_n = k_n S_n \dots\dots\dots (3)$$

위의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정적 자극에 대한 평가(E_p)와 부정 자극에 대한 평가(E_n)가 각각의 자극에 무게를 달리 부여한 함수라는 가정에 기초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상이한 평가적 의미를 갖는 두개의 정보가 통합되어지는 데 관한 Warr (1974)의 두 과정이론(two process formulation)과 비슷하다. 우리는 앞 절에서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부정 자극이나 특성의 영향이 정적 자극이나 특성의 영향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자세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해서, 정적 자극에 대한 평가가 자극(S) 속성의 크기에 1/2의 比로 비례하고, 부정 자극에 대한 평가가 1/1의 比로 비례한다고 다시 가정하면, 도 1과 같이 나타내질 수 있다.

한편, 상기의 공식(2)와 (3)에서 어떤 자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극이 갖는 무게(K)에 의해서 매개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게나 常數들은 상기의 공식들에서 다음과 같이 유도되어질 수 있다.

$$K_p = \frac{E_p}{S_p} \dots\dots\dots (4)$$

$$K_n = \frac{E_n}{S_n} \dots\dots\dots (5)$$



도 1. 자극(S)에 대한 평가(E_s)에서의 정적 자극과 부적 자극 사이의 차이에 관한 도식적 표현(단, 여기에서 평가에서의 정적 자극의 무게(K_p)는 $1/2$ 로서, 부적 자극의 무게(K_N)는 1로서 가정되었다.

위에서 常數 k_p 나 k_N 은 자극(S)의 속성과 평가(E_s)의 성질에 따라 변하게 된다. 예컨대, 자극속성이 인물형용사의 好惡度이고, 반응이나 평가의 속성이 그 인물형용사에 의해 기술된 사람에 대한 好惡度라고 가정하면, 자극속성과 반응속성은 매우 동질적이게 되고 k_p 나 k_N 은 1에 가깝게 될 것이다. 한편, 자극속성이 인물형용사의 好惡度이고 평가의 속성이 그 인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거나, 친해지고 싶은 욕망, 즉 和親判斷이거나(조궁호, 1982 참조),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인정일 경우에는 자극속성과 평가속성은 異質的으로 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 자극속성과 한 반응속성의 관계는 어떤 比率 속

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율이나 무게는 자극차원의 단위와 반응차원의 단위에 따라서도 그 수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常數는 경험적으로 결정되어지며, 일반적으로는 정신물리학에서의 Weber의 常數와 같다.

또한, 정적인 자극들과 부적인 자극들 각각에서 더 극단적인 자극과 덜 극단적인 두개의 자극 사이의 評價의 差異는 다음과 같은 公式를 사용해서 예언되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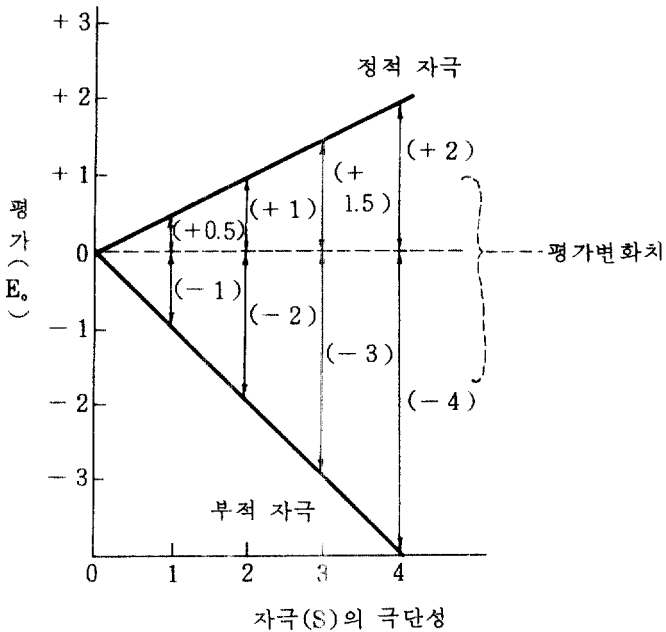
$$E_{P1} - E_{P2} = k_p \times (S_{P1} - S_{P2}) \dots\dots\dots (6)$$

$$E_{N1} - E_{N2} = k_n \times (S_{N2} - S_{N1}) \dots\dots\dots (7)$$

위의 公式은 정적 자극들 내에서, 정적 자극 1 (S_{P1})과 정적 자극 2 (S_{P2})는 常數 k_p 를 매개로 해서 정적 자극 1에 대한 평가(E_{P1})와 정적 자극 2에 대한 평가(E_{P2}) 사이의 차이를 일으킨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부적 자극 1 (S_{N1})과 부적 자극 2 (S_{N2})는 常數 k_n 을 매개로 해서 부적 자극 1에 대한 평가(E_{N1})와 부적 자극 2에 대한 평가(E_{N2}) 사이의 차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의 공식들에서 두 자극은 어떤 단일한 두 자극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자극들의 組合에 따른 자극치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公式(6)과 (7)을 기초로 해서, 정적 자극들과 부적 자극들 각각의 안에서의 두 자극 사이의 평가 차이들이 계산되어질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정적 자극에 대한 k_p 가 $1/2$ 이고 부적 자극에 대한 k_n 이 1이라고 가정하면, 정적 자극들과 부적 자극들은 자극의 극단성들이 0으로부터 1, 2, 3 및 4 단위로 멀어짐에 따라 평가 차이가 다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과 평가 변화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도 2에 제시되어져 있다. 도 2를 보면, 정적 자극은 자극(S)의 극단성이 0에서 1, 2, 3 및 4로 변화됨에 따라 자극의 극단성 0에서 부터 평가가 각각 +0.5, +1, +1.5 및 +2로 변화되고 있고, 부적 자극은 자극(S)의 극단성이 0에서 1, 2, 3 및 4로 변화됨에 따라 자극의 극단성 0에서부터 평가가 -1, -2, -3 및 -4로 변화되고 있다.

한편, 정적 자극과 부적 자극이 함께 組合을 이루어 단일한 평가반응을 일으킬 경우에는 만일에 이 두 자극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게, 가산되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종합된 평가 ($E_{P \times N}$)는 다음과 같은 公式에



도 2. 자극(S)의 극단성의 증가에 따른 극단성 = 0으로부터의 평가 변화에 관한 도식적 표현(단, 정적 자극의 $K_p = 1/2$ 이고 부적 자극의 $K_n = 1$ 로서 가정되었다.

의해서 통합되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E_{p \times n} = k_p S_p + k_n S_n \dots\dots\dots (8)$$

그러나, 자극에 대한 평가의 統合에서는 두개의 평가가 단순하게 加算되지는 않을 것이다. 평가의 통합에서는 각각의 평가가 加算되어질 뿐만 아니라 相互作用效果도 첨가되어지게 된다. 예컨대, 사회적 판단이론(Sherif와 Hovland, 1961; Sherif, Sherif 및 Nebergall, 1965)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은 기존의 태도에 비추어서 同化되거나 對比된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판단과 가까운 판단대상에 대한 판단은 同化되고 먼 판단대상에 대한 판단은 對比된다고 한다. 또한 모든 판단에서는 판단의 이러한 상호작용효과 이외에도 誤差變因이

작용되게 된다. 이러한 판단에서의 상호작용효과와 오차변인의 영향은 여기에서 상세하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평가반응의 예언공식에 포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자극대상에 대한 평가의 統合에서는 두 자극대상의 상호작용효과와 아울러, 오차변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變量分析(ANOVA)의인 개념화와 일치된다. 따라서 정적 특성과 부적 특성의 평가반응의 統合公式(8)은 상기의 두 요인을 첨가시켜서 기본적으로 다음 公式과 같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

$$E_{P \times N} = k_p S_p + k_N S_N + I_{SP \times SN} + e \dots\dots\dots(9)$$

상기 공식에서 $I_{SP \times SN}$ 은 정적 평가와 부적 평가가 함께 통합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e 는 誤差變因을 나타낸다.

(3) 본 연구의 목적 및 가설

이상의 이론적 제시에서 우리는 정적 속성이나 정보와 부적 속성이나 정보에 따른 인간의 판단이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양상은 정적 속성이나 정보보다도 부적 속성이나 정보에 더 큰 무게를 부여하는 모형에 의해서 기술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모형은 사회심리학의 연구 분야 중에서 특히 인상형성, 모험하기, 정보에 대한 접촉, 태도의 구조와 태도변화, 인지적 균형 등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균형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인지적 균형이론(Heider, 1958)이 사회심리학에서의 여러 인지적 이론들의 기본이 되며, 수학적 이론화를 위한 시도들(Cartwright와 Harary, 1956; Wiest, 1965; Feather, 1964, 1965, 1967; Abelson과 Rosenberg, 1958; Rosenberg와 Abelson, 1960; Wellens와 Thistlethwaite, 1971 a, 1971 b)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수학적 모형들에서는 관계의 부호, 즉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나 霧의 관계가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에 부호의 속성들이 다르다고 가정될 수 있고 이 가정이 타당하다면, 그러한 수학적 모형들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져야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O-Q의 三者關係에서 지각자(P)와 타인(O)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인물형용사에 대한 好惡度 측정치들(Anderson, 1968, 윤 호윤, 1970)을 이용하였다. 즉, 지각자의 타인(O)과 제삼자(Q)에 대한 好惡의 정도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인물형용사의 호오도치를 고려해서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의 好度와 惡度を 동일하게 만들고, 각 관계의 안에서도 好와 惡의 극단성의 정도를 동일하게 되도록 인물형용사들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에, 타인을 이들 형용사를 이용해서 기술함으로써 관계의 正과 負의 정도(극단성)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이 P-O-Q 상황들에서 P/Q 관계와 O/Q 관계의 매력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三者關係의 상황들에서는 세개의 關係와 이들의 상호작용들의 효과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正負關係의 극단성의 영향은 다른 변인들과 복잡하게 상호작용될 것이다. 본 실험의 P-O-Q 상황의 특징들에서 우리는 P/O 관계의 극단성에 관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要因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요인은 P/O 關係 正負要因과 극단성과의 상호작용이다. 본 연구의 기본가정이 부적 특성은 정적 특성보다 평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 고로, 부적 P/O 관계는 정적 P/O 관계보다도 관계의 극단성이 증가될수록 P/O 관계의 매력도 예측에서 더 큰 차이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둘째 요인은 태도의 一致-不一致要因과 P/O 관계의 極端性 要因과의 상호작용이다. 이미, 태도의 일치도나 유사성은 타인에 대한 매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예 ; Byrne, 1969 ; Byrne과 Nelson, 1964). 그러므로 우리는 태도의 일치나 유사를 正的 特性으로서, 그리고 태도의 불일치나 비유사를 負的 特性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만일에 태도의 일치와 불일치가 타인에 대한 정적 특성과 부적 특성으로서 작용된다면, 우리는 본 연구의 기본가정에 따라 태도의 불일치는 일치보다도 P/O 관계의 극단성이 증가될수록 P/Q 관계의 예측에서 더 큰 차이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될 구체적 假說은 다음과 같다 : ① 負的 P/O 關係는 正的 P/O 關係보다도 그 극단성이 증가될수록 P/Q 매력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② 타인(O)에 대한 태도의 不一致는 一致보다도 P/O 關係의 극단성이 증가될수록 P/Q 매력도에 더 큰 영

향을 줄 것이다.

實 驗 工

본 실험에서는 P-O-Q의 상황을 이용해서, P/O관계의 好惡度를 인물기술형용사를 사용하여 관계의 正과 負와 그 극단성을 정밀하게 조작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피험자들에게 O/Q관계를 P/O관계와 一致되거나 不一致되게끔 만들어서, P/Q관계의 매력도를 판단케 요구하여, P/O관계의 호오 극단성이 P/Q관계의 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P-O-Q 상황에서는 P/O관계와 P/Q관계가 특별히 구별되는 관계는 아니다).

方 法

被驗者 : 피험자는 전북대학교 의예과 2학년 학생들로서 “태도일치조건”에는 31명이 있었고 “태도불일치조건”에는 35명이 있었는데, 조사지에서 반응이 누락되었던 사람들을 각각 2명과 4명을 제외시켰고 자료처리를 위해서 후자의 조건에서 2명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각 집단에는 29명의 피험자가 있게 되었다. 피험자들은 “태도일치조건”에서만 女子가 3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남자이었다.

材料 및 節次 : 실험재료는 조사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P/O관계의 正負와 그 극단성을 조작하기 위해서 好惡度值가 비교적 정밀하게 측정되어져 있는 인물형용사를 이용하였다. 즉, P/O관계의 방향과 강도는 P-O-Q상황에서 인물형용사들을 사용해서 O를 기술함으로써 P/O관계의 성질을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윤호운(1970)의 자료에서 정적 및 부정 인물형용사들 가운데에서 그 극단성이 上, 中 및 下인 형용사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방법은 正·負의 각 극단에 있는 형용사들의 극단성이 비슷하게 되도록 하고, 극단성이 上, 中 및 下의 각 간격이 .90 정도가 되도록 각각 5개씩 선정하였다. 그 결과로 선정된 正的 형용사들은 (평정치의 중간점 3을 빼어서) 정적 특성-극단성 上조건에서는 정직하다(2.52), 훌륭하다(2.29), 성실하다(2.27), 양심적이다(2.26) 및 친절하다(2.10)가 선정되었고, 이들 형용사의 평

균 평정치는 +.2.29 이었다. 정적 특성 - 극단성中 조건에서는 재미있다(1.41), 활달하다(1.36), 섬세하다(1.36), 자신있다(1.35) 및 민첩하다(1.34)가 선정되었고, 이들 형용사의 평균 평정치는 1.36 이었다. 그리고 정적 특성 - 극단성下 조건에서는 외향적이다(.58), 수단 좋다(.46), 끈덕지다(.44), 꼼꼼하다(.44) 및 잼싸다(.38)가 선정되었고, 이들 형용사의 평균 평정치는 .46 이었다. 선정된 負的 형용사들은 부정적 특성 - 극단성上 조건에서는 잔인하다(-2.52), 파렴치하다(-2.30), 무자비하다(-2.26), 악하다(-2.25) 및 무례하다(-2.29)가 선정되었고, 이들 형용사의 평균 평정치는 -2.29 이었다. 부정적 특성 - 극단성中 조건에서는 유난스럽다(-1.41), 거칠다(-1.37), 질긋다(-1.35) 및 느리다(-1.32)가 선정되었고, 이들 형용사의 평균 평정치는 -1.36 이었다. 그리고 부정적 특성 - 극단성下 조건에서는 악착스럽다(-.52), 충동적이다(-.52), 완고하다(-.47), 과격하다(-.46) 및 약삭빠르다(-.30)가 선정되었고, 이들 형용사의 평균 평정치는 -.45 이었다. 이들 30 개의 형용사들을 사용해서 P/O 관계를 조작한 다음에 Q/O 관계를 “Q가 O를 좋아한다”거나 “Q가 O를 싫어한다”로 기술해서 P와 Q 사이에 O에 대해서 태도가 一致되거나 不一致되도록 조작하였다. 즉, 正的인 O에 대해서 Q가 역시 그를 좋아한다면, 태도가 一致되고, 負的인 O에 대해서 Q가 그를 좋아한다면 태도가 不一致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P/O와 Q/O 관계를 조작한 다음에, 피험자들에게 지각자(P) 즉, 나의 입장에서 Q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을 느낄 것인가를 평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태도 불일치 조건의 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O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Q는 O를 싫어한다.”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피험자들에게 P의 O에 대한 매력도를 평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매력도 평정을 위해서 Byrne(1961)이 사용하였던 두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나는 Q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아하거나 싫어할 것 같이 느껴집니까? 와 나는 어떤 일을 Q와 함께 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좋아하거나 싫어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4 ~ -4에 이르는 9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양극단은 “매우 좋아할 것 같다”와 “매우 싫어할 것 같다”로 기술되었다. 두 척도는 부호의 극단성이 반대되도록 해서, 첫번째 척

도는 +4가 맨 좌측에 오도록 하였고 두번째 척도는 -4가 맨 좌측에 오도록 하였다.

실험은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교실에서 실시되었고 실시시간은 20 ~ 30 분이 소요되었다.

實驗設計 : 본 실험에서는 2 (태도의 一致와 不一致) × 2 (P/O관계의 正과 負) × 3 (正과 負의 관계의 극단성 上, 中 및 下)의 變量分析의 설계가 사용되었다. 태도 一致와 不一致 要因은 被驗者間 變因이 되었고, P/O관계의 正負 要因과 극단성(上, 中 및 下) 要因은 모두 被驗者內 變因이 되었다.

結果 및 論議

피험자들의 P-O-Q 상황들에서의 태도의 一致-不一致 條件別, P/O 관계의 正負 要因과 그 극단성 要因에 따른 P/Q관계의 매력도 평정치들의 평균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 상황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두개의 매력도 평정점수들은 합계되어져서 둘로 나누어서 평균 매력도 평정치를 계산하였고, 각 극단성 條件에 속하는 이러한 5개의 평정치들도 평균되었다. (따라서 점수범위는 +4에서 -4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평균 평정치들의 각 條件別 평균치들은 표 1에 제시되어져 있고, 이들 점수에 대한 變量分析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져 있다.

P/O關係의 正負 要因과 극단성 要因 사이의 상호작용효과: 본 실험의 첫째 假說, 즉 부정 P/O關係는 정적 P/O關係보다도 극단성이 증

〈표 1〉 P-O-Q 상황들에서 태도의 一致-不一致 條件(a)別, P/O 관계의 正負 要因(b)과 그 극단성 要因(c)에 따른 P/Q관계의 매력도 평정점수들의 평균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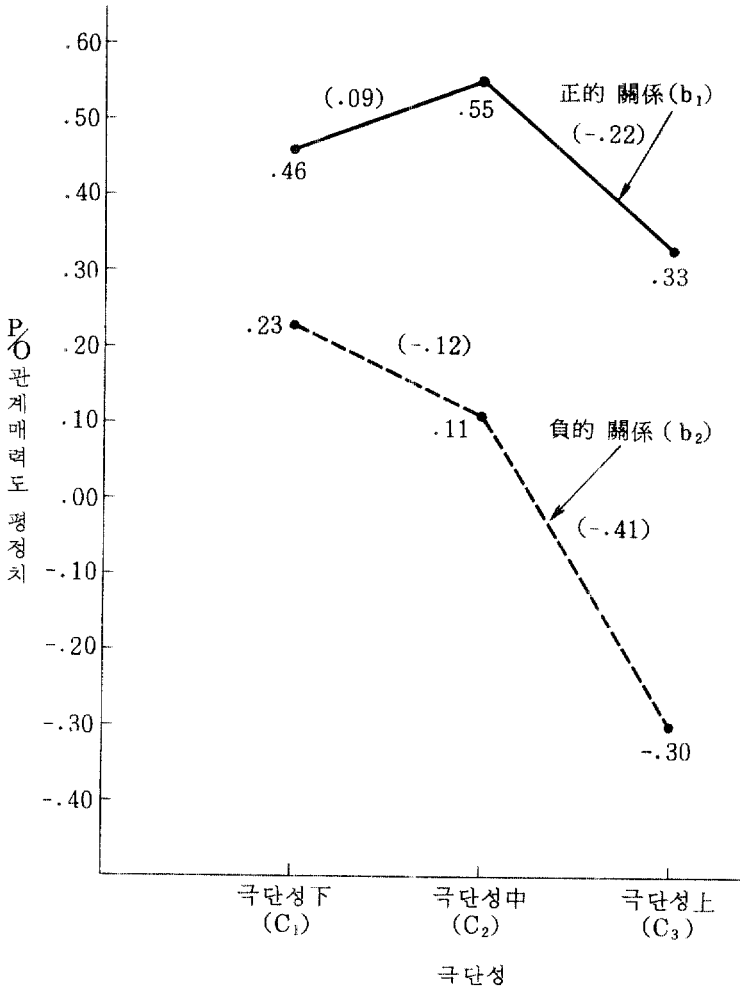
	正的 關係 (b ₁)			負的 關係 (b ₂)			전 체
	극단성 下 (C ₁)	극단성 中 (C ₂)	극단성 上 (C ₃)	극단성 下 (C ₁)	극단성 中 (C ₂)	극단성 上 (C ₃)	
	(소계)			(소계)			
태도 一致 (a ₁) (N = 29)	.98	1.78	2.70 (1.82)	.62	.69	1.90 (1.07)	1.44
태도 不一致 (a ₂) (N = 29)	-.55	-.69	-2.03 (-1.09)	-.16	-.48	-2.51 (-1.05)	-1.07

〈표 2〉 P/Q관계 매력도 점수들에 대한 변량분석 요약

변산원	자승화	df	平均自乘	F
被験者間	618.23	57		
태도일치여부(A)	514.65	1	514.65	278.19 **
集團內	103.58	56	1.85	
被験者內	379.05	290		
P/O正負(B)	16.60	1	16.60	51.88 **
AB	8.44	1	8.44	26.38 **
B×集團內	46.10	56	.32	
극단성(C)	7.98	2	3.99	9.73 **
AC	210.90	2	105.45	257.20 **
C×集團內	46.21	112	.41	
BC	2.40	2	1.20	3.75 *
ABC	4.95	2	2.48	7.75 **
BC×集團內	35.47	112	.32	

* P<.05, ** P<.01.

가될수록 P/Q관계 매력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假說은 P/O관계의 正負要因과 극단성 要因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해서 검증되어질 수 있다. 표 2에서 이 두 要因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P<.05). 이 상호작용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 3을 보면, 負的 關係가 正的 關係보다도 극단성이 증가됨에 따라 훨씬 더 큰 하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흥 대식(1980 a)의 대상호오도의 강약에 따른 P/O관계의 正負가 삼원적 상황의 안정도 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와 일치된다. 正的 關係와 負的 關係別로 극단성조건에 따른 매력도 평정치들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正的 關係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t = .57, df = 28, ns) 및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t = 1.17, ns)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負的 關係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t = 1.18, df = 28, ns)와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t=1.64, ns)에서는 차이가 유의치 않았고 극단성下와 극단성上 사이에서만 차이의 경향을 나타냈다(t = 1.96, P<.10). 따라서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에 대한 극단성 條件들 사이의 차이들은 미약하기는 하였지만, 정적 관계보다도 부적 관계가 극단성이 증가됨에 따라 더 큰 매력도 평정



도 3. 관계의 극단성 要因에 따른 正的 및 負的 P/O 관계별, P/Q 관계 매력도 평정치(BC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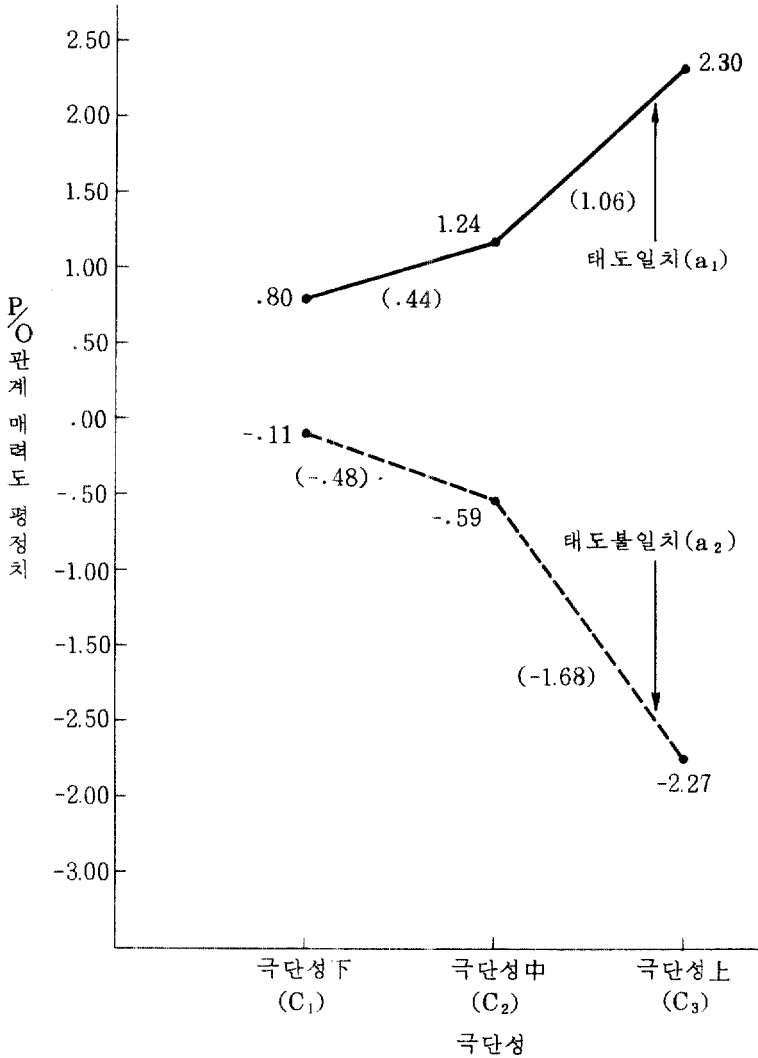
치의 감소를 보여서 假說 I 은 지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태도의 一致 - 不一致 要因과 극단성 要因 사이의 상호작용효과: 본 실험의 두번째 가설, 즉, 타인에 대한 태도의 불일치는 일치보다도 P/O 關係의 극단성이 증가될수록 P/Q 관계 매력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

라는 가설은 태도의 一致-不一致 要因과 극단성 要因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서 검증되어질 수 있다. 표 2에서 이 두 要因의 상호작용 효과는 매우 유의하였다($<.01$). 이 상호작용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 4를 보면, 태도불일치조건이 태도일치조건보다도 극단성이 커짐에 따라 더 급격한 傾斜로 변화되고 있다. 태도일치조건에서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t = 5.50, df = 28, p < .01$) 및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t = 9.64, p < .01$)의 차이들은 모두 유의하였고, 태도불일치조건에서도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t = 4.00, df = 28, p < .01$) 및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t = 13.48, p < .01$)의 차이들은 모두 유의하였다. 매력도 변화점수들을 보면, 정적 관계에서는 극단성下에서 上으로 $+ 1.50$ 이 변화된 반면에, 부적 관계에서는 $- 2.16$ 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흥 대식(1980a)의 대상호오도의 強弱에 따른 삼원적 상황의 愉快度와 安定度 평정결과들과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번째 假說은 강력하게 지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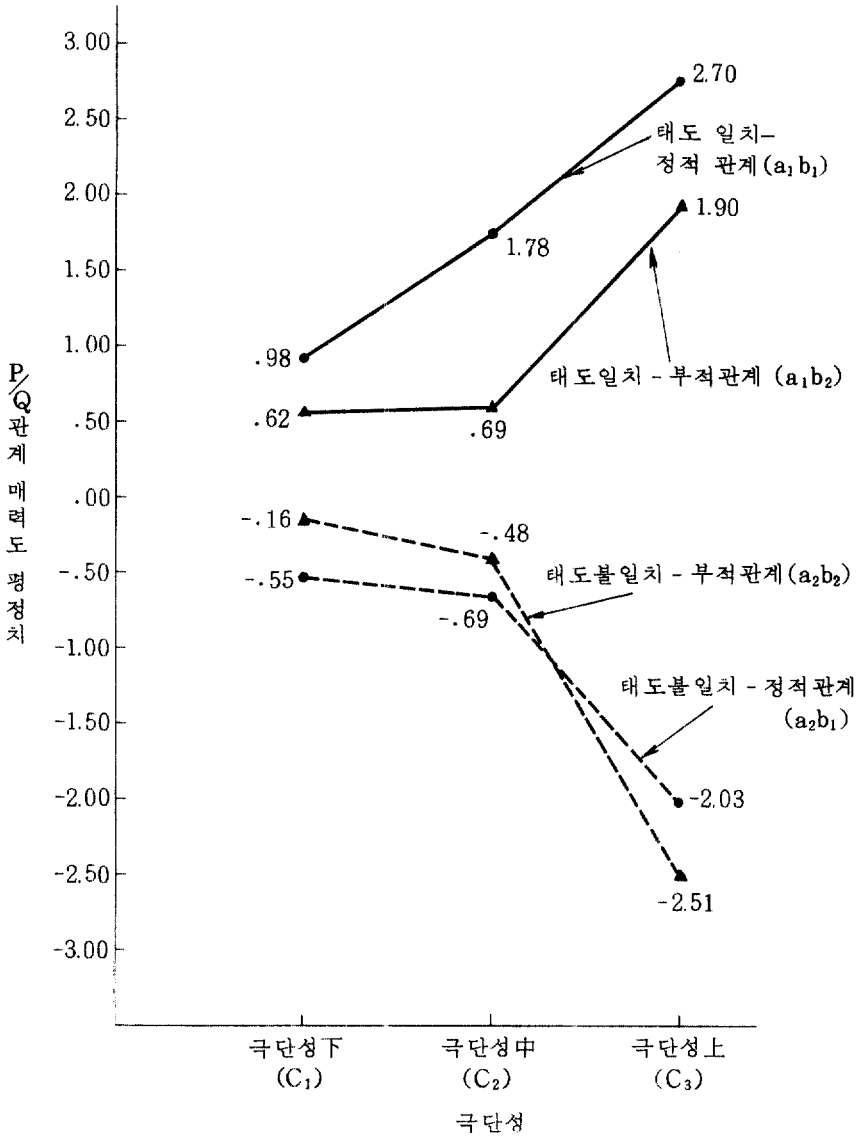
특히, 도 4를 보면, 타인에 관한 정보에서 負的 情報에 해당되는 태도 불일치는 正的 情報에 해당되는 태도 일치보다도 관계나 태도의 극단성이 증가됨에 따라 특히 극단성中에서부터 극단성上 사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도 3의 正的 關係와 負的 關係에 대한 그림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負的 關係나 태도 불일치의 큰 영향력은 극단성 要因과 태도 불일치요인 및 극단성요인의 유의한 三次 相互作用效果($p < .01$)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도 5을 보면, 태도일치-부적 P/O관계의 조건과 태도 불일치-부적 P/O관계의 조건이 태도일치-정적 P/O관계의 조건과 태도불일치-정적 P/O관계의 조건보다도 극단성中에서부터 극단성上으로 갈수록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부적 P/O관계의 태도일치와 불일치 조건들이 정적 P/O관계의 태도일치와 불일치 조건들보다도 극단성이 증가됨에 따라 더 큰 변화나 경사를 보이고 있다.

도 5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정적 P/O관계에 대한 태도의 일치가 부적 P/O관계에 대한 태도 일치보다도 타인에 대한 매력을 극단성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즉, 공동의 친구를 가진 타인에 대한 매력은 공동의 적을 가진 타인에 대한 매력보다도 더 높았다. 그러나, 태도불일치의 조건에서는 태도일치의 조건과는 다



도 4. 관계의 극단성요인에 따른 태도 일치와 태도 불일치 조건별, P/Q관계 매력도 평정치(AC상호작용)

르게, 태도불일치 - 정적 P/O관계가 처음에는 태도일치 - 부정적 P/O
 제보다도 타인에 대한 매력을 덜 감소시켰지만, 관계의 극단성이 커
 지게 되면 그 반대로 매력도가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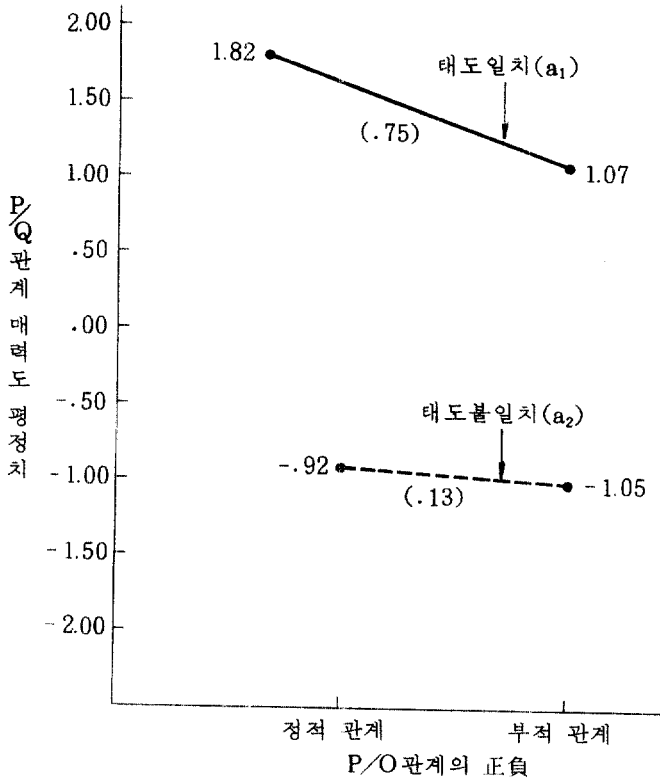


도 5. 관계의 극단성 要因에 따른 태도 일치-불일치와 正負 P/O 관계별, P/Q관계 매려도 평정치(ABC 상호작용)

도 4에서 한가지 흥미있는 결과는 매력도 0을 기준으로 볼 때에 태도일치 조건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중에서 매력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태도불일치조건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을 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매력도 0을 기준으로 태도일치와 태도불일치 조건들 간의 차이를 검증했을 때(즉, 태도일치와 태도불일치에 따른 매력도 평정치의 부호를 고려치 않았을 때), 태도일치 조건은 태도불치조건보다도 극단성下($t = 4.94, df = 56, p < .01$)와 극단성中($t = 3.83, df = 56, p < .01$)에서는 매력을 더 크게 증가시킨 반면에, 극단성上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 = .15, df = 56, ns$). 이러한 결과는 대인매력에서 인간이 처벌-지향적(punishment-oriented) 이기보다는 보수-지향적(reward-oriented) 접근을 취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여기에서 지향적이라는 말은 민감성이라는 말을 뜻한다.) 즉, 태도의 일치나 유사성을 강화를 주는 보수라고 간주할 때(Clore와 Byrne, 1974참조),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호오도가 下나 中일 경우에는 태도불일치(즉, 처벌)보다도 태도일치(즉, 보수)에 더 주목하며, 대상의 호오도가 上일 경우에만 태도불일치와 태도일치를 동일하게 주목한다. 따라서 부적 정보우월현상은 어떤 정보나 속성이 극단적인 쪽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인간의 보수-지향성에 대한 증거는 P/O관계의 正負要因과 태도일치-불일치要因의 상호작용효과($p < .01$)에서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다(도 6 참조). 도 6에서 태도불일치조건에서는 정적이거나 부적인 타인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P/O관계 매력도가 비슷하게 부적으로 평가되어진 반면($t = .90, df = 28, ns$)에, 태도일치조건에서는 부적 관계보다도 정적 관계에 대한 태도일치에서 P/Q관계 매력도가 더 높았다($t = 5.60, df = 28, p < .01$). 이러한 결과는 홍대식(1980a)의 대상에 대한 호오강도가 삼원적 상황들의 유쾌도평정, 안정도평정, P/O관계 변화의도 평정, 전체 관계들의 변화의도 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들과 일치되며, 홍대식(1980b)과 김치환(1982)의 유쾌도평정 결과들과 일치되고 있다. 정적 P/O나 부적 P/O 관계들에 관계없이 불일치조건에서 동일한 평정치를 보인 것은 부적인 특성(즉, 불일치)의 영향의 안정성이나 부적 정보우월효과를 반영할 것이다.

한편, 균형이론(Heider, 1958)에서는 삼원적 관계에서 태도의 일치



도 6. P/O관계의 正負 要因에 따른 태도 일치와 불일치 조건별, P/Q관계 매력도 평정치(AB상호작용)

는 타인에 대한 매력을 정적으로 증진시키고, 태도의 불일치는 부정적으로 감소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본 실험의 결과 중에서도 도 4를 보면, 태도의 일치조건에서는 타인에 대한 매력도가 세개의 극단성조건들에서 모두 正的이었고 태도불일치 조건에서는 모두 負的이었다. 따라서 균형이론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균형이론은 홍대식(1982)의 주장대로 관계의 극단성의 要因의 면에서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즉, 삼원적 상황들에서 대상에 대한 태도의 극단성이 증가됨에 따라 태도 일치보다도 태도 불일치에 더 큰 무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검증된 두개의 가설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實 驗 II

앞 실험에서는 P-O-Q의 三元的 關係의 상황 중에서 직접적인 P/Q (또는 P/O)관계의 매력도 판단에 미치는 P/O관계의 正負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한편, O/X관계는 P/O관계나 P/Q 또는 P/X관계와는 심리적 의의나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Newcomb(1968)은 P-O-X관계의 상황들에서 P/O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독특하며, P/X관계는 비교적 복잡성이 적은 직접적 관계이며, O/X관계는 지각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일차적 정보를 나타내기 보다는 이차적 정보를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P/O, P/X (또는 P/Q) 및 O/X관계들이 갖는 심리적 성질들이나 역학들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홍 대식(1980a)에서 비교적 동일한 맥락들 내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어지고 있다. 그의 자료들 중에서 각 관계들의 추리에 대한 균형효과를 살펴보면, P/O관계 추리에 관한 한개의 자료는 Heider(1958)의 균형이론과 매우 일치되는 P/X 正負와 O/X 正負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O/X관계 추리에 관한 세개의 자료는 +P/O상황들에서는 Heider(1958)의 균형이론과 일치된 반면에, P/O의 상황들에서는 Newcomb(1968)의 이론과 일치되게 모두 추리점수가 +와 -의 중간점(즉, 0 점)으로 수렴되게 추리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P/X관계 추리에 관한 한개의 자료는 앞의 두 관계의 중간으로 나타났다. 그의 자료들 중에서 관계 변화의도에 대한 균형효과들도 P/X관계 변화 의도에서는 세개의 자료가 모두 Newcomb(1968)의 이론과 일치되게 모두 변화의도점수가 +와 -의 중간점(즉, 0 점)으로 수렴되게 변화를 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한편, P/O관계 변화의도 점수들에 대한 균형효과들에 관한 세개의 자료는 Heider(1958)나 Newcomb(1968)의 이론들과 일치되지 않는 상호작용양상을 보였다(즉, 균형효과보다는 P/O 正負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홍 대식(1982)의 이론적 분석에서는 세개의 관계들에 대한 P/O관계의 正負, 態度-一致度 및 均衡 요인들의 영향에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는 P/O관계는 다른 관계들보다도 지속성이 있으며, P/X관계는 흔히 자주 바뀌며, O/X관계는 지각자

* 본 실험의 資料는 金賢鎬에 의해 수집되었다. 수고해 준데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들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P/O 관계의 강도의 영향을 P/Q 관계의 매력도 판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O/Q나 Q/O 관계들의 매력도 판단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O/Q나 Q/O 관계들의 매력도 판단에 대한 P/O 관계 강도의 영향은 P/Q 관계 매력도 판단에 대한 영향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예상된다. 즉, P/Q 관계의 正負에 미치는 극단성 요인은 앞 실험에서와 같이 간단하게 분석되어질 수 있지만, P/O 관계의 부호와 P/Q 관계의 부호의 일치도에 미치는 극단성 요인의 영향은 앞 실험에서의 태도일치도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앞 실험에서의 태도일치도의 요인은 피험자들에게 쉽게 개념화되어질 수 있는 요인인 반면에,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은 正과 負의 P/O 관계의 부호일치 여부에 초점을 두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태도의 일치와 P/O와 P/Q 관계들의 부호의 일치를 균형 이론에 따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검증될 가설은 앞 실험과 동일하다.

方 法

被驗者 : 피험자는 전북대학교 수학교육과 2학년 학생들로서 “P/O와 P/Q 관계 부호의 일치조건”에서는 32명이 있었고 P/O와 P/Q 관계 부호들의 불일치조건”에서는 30명이 있었는데, 두 조건에 있는 피험자들 중에서 반응이 누락되었던 사람들을 각각 2명과 3명을 제외시켰고 자료처리를 위해서 전자의 조건에서 3명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각 집단에는 27명의 피험자가 있게 되었다(남자와 여자는 각각 21명과 33명이었다).

材料 및 節次 : 본 실험에서도 P/O 관계의 호오 극단성은 앞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작되었다. P/O 관계의 호오 극단성을 인물형용사들을 사용해서 조작한 다음에, P/Q 관계는 P가 O가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로 기술해서 관계의 방향이나 부호를 조작하였다. 한 집단에게는 P/O와 P/Q 관계들의 正과 負의 부호가 일치되는 상황들을 제시하였고(부호일치집단), 다른 집단에서는 P/Q 관계들의 正과 負의 부호

가 서로 반대되는 상황들을 제시하였다(부호불일치집단).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부호일치조건의 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O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Q를 좋아한다.”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피험자들에게 “O의 Q에 대한 매력”과 “Q의 O에 대한 매력을 평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각각의 매력도 평정은 +4에서 -4에 이르는 9점 척도상에 나타내게 하였으며, 척도의 양극단은 “매우 좋아할 것 같다”와 “매우 싫어할 것 같다”로 기술되었다. 두개의 평정척도는 +와 -의 방향을 바꾸어서 평정들 상호간의 영향을 줄이려고 하였다.

실험은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교실에서 실시되었고 실시시간은 20 ~ 30 분이 소요되었다.

實驗設計: 본 실험에서는 2 (P/O와 P/Q 관계들의 부호의 일치와 불일치) × 2 (P/O관계의 正과 負) × 3 (正과 負의 관계의 극단성上, 中 및 下)의 變量分析의 설계가 사용되었다. P/O와 P/Q 관계들의 부호의 일치와 불일치 요인은 被驗者間 變因이 되었고 P/O관계의 正負要因과 극단성(上, 中 및 下) 요인은 모두 被驗者內 變因이 되었다.

結果 및 論議

피험자들의 각 상황에 대한 매력도 평정들의 평균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세개의 극단성 조건에 속하는 각각의 5개의 평정치들은 합계되어져서 평균되어졌다. 각 조건별 평균 평정치들은 표 3 (O/Q 매력도)과 표 4 (Q/O 매력도)에 제시되어져 있고, 이들 점수에 대한 變量分析 결과는 각각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져 있다.

P/O관계의 正負要因과 극단성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효과: 부적 P/O관계가 정적 P/O관계보다도 극단성이 증가될수록 O/Q나 Q/O관계들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들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5와 6에서와 같이, 이들 두 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p < .01$). O/Q와 Q/O관계 매력도 평정에 미치는 P/O관계에 正負要因과 극단성要因 사이의 상호작용양상은 도 7과 8에서 제시되어져 있다. O/Q관계 매력도 평정치의 양상은 正的 關係에서는 극단성이 증가됨에 따라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에서는 크게 증가되었고 극단성中에서 上 사이에서는 더 적게 증가되

〈표 3〉 P-O-Q 상황들에서 P/O 관계와 P/Q 관계의 부호 一致—不—一致條件(a)別, P/O 관계의 正負要因(b)과 그 극단성(c)에 따른 Q/O 관계의 매력도 평정점수들의 평균치들

	正的 關係(b ₁)				負的 關係(b ₂)				전 체
	극단성 下)	극단성 中	극단성 上	(소계)	극단성 下)	극단성 中	극단성 上	(소계)	
	(C ₁)	(C ₂)	(C ₃)		(C ₁)	(C ₂)	(C ₃)		
부호一致(a ₁) (N = 27)	.82	1.93	2.70	(1.82)	.03	.16	-.08	(.04)	.93
부호不一致(a ₂) (N = 27)	-.21	.19	-.66	(-.23)	.45	.41	-.31	(.18)	-.03

〈표 4〉 P-O-Q 상황들에서 P/O 관계와 P/Q 관계의 부호 一致—不—一致條件(a)別, P/O 관계의 正負要因(b)과 그 극단성(c)에 따른 Q/O 관계 매력도 평정점수들의 평균치

	正的 關係(b ₁)				負的 關係(b ₂)				전 체
	극단성 下)	극단성 中	극단성 上	(소계)	극단성 下)	극단성 中	극단성 上	(소계)	
	(C ₁)	(C ₂)	(C ₃)		(C ₁)	(C ₂)	(C ₃)		
부호一致(a ₁) (N = 27)	.37	2.13	2.71	(1.74)	.31	.59	1.04	(.65)	1.20
부호不一致(a ₂) (N = 27)	-.09	-.04	-1.32	(-.48)	-.58	-.90	-1.93	(-1.14)	-.81

었으며,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負的 關係에서는 앞 실험의 결과와 같이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에서는 약간 증가되었고,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에서는 크게 감소되었으며, Q/O 매력도 평정치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에서는 약간 감소되었고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에서는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일반적 변화 양상은 앞 실험의 P/Q 관계 매력도 평정치의 양상과 유사하다. 도 7와 8에서 일반적으로 정적 관계의 영향은 극단성下와 中 사이에서 부적 관계의 영향보다 더 컸지만, 부적 관계의 영향은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에서 정적 관계의 영향보다 더 컸다.

조건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서의 조

〈표 5〉 O/Q관계 매력도 평정점수들에 대한 변량분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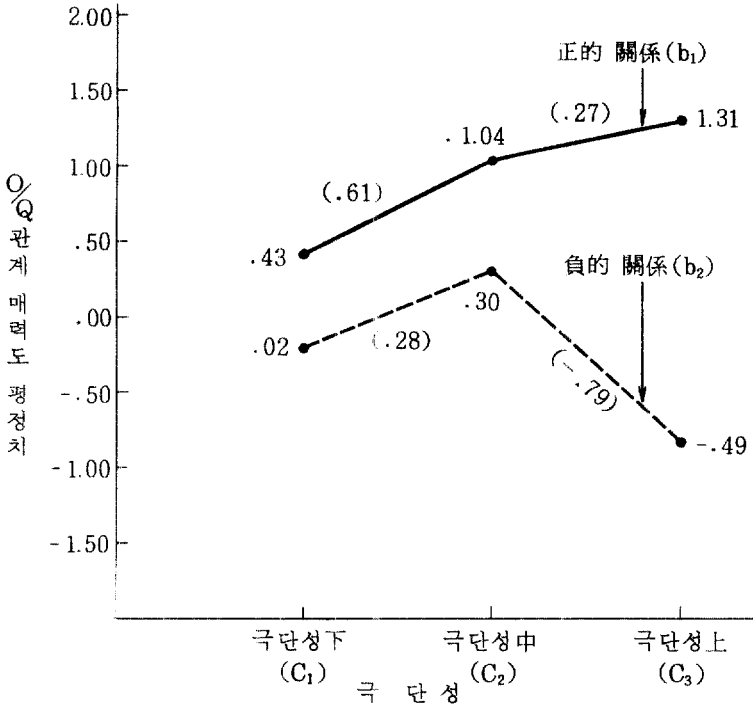
변 산 화	자 승 화	df	平均自乘	F
被 驗 者 間	163.14	53		
부호일치여부(A)	38.03	1	38.03	15.78 **
集團內	125.11	52	2.41	
被 驗 者 內	559.31	270		
P/O正負(B)	72.25	1	72.25	30.36 **
AB	97.13	1	97.13	40.81 **
B×集團內	123.94	52	2.38	
극단성(C)	18.11	2	9.06	15.10 **
AB	8.84	2	4.42	7.37 **
C×集團內	62.80	104	.60	
BC	31.67	2	15.84	12.18 **
ABC	9.86	2	4.93	3.79 *
BC×集團內	134.71	104	1.30	

* P<.05, P<.01.

〈표 6〉 Q/O관계 매력도 평정점수들에 대한 변량분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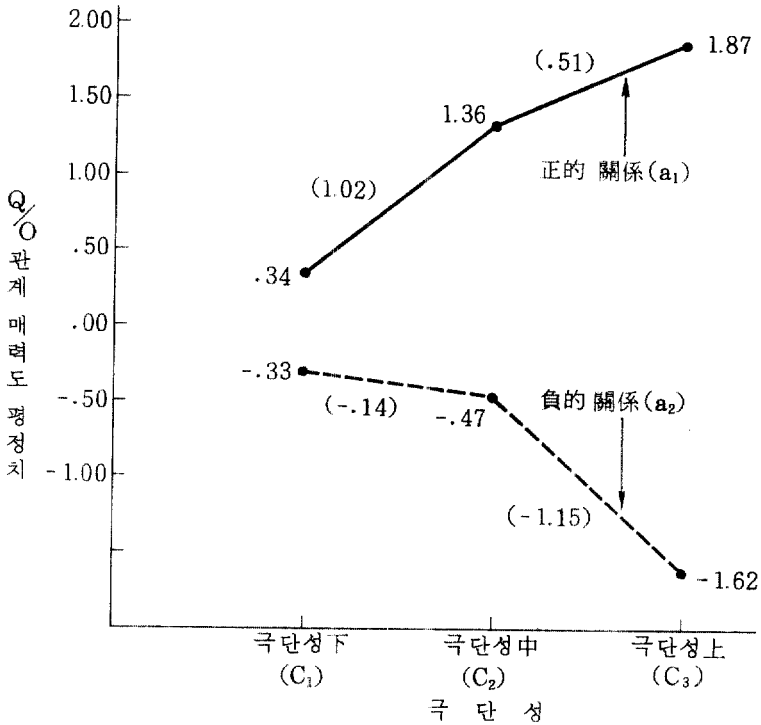
변 산 원	자 승 화	df	平均自乘	F
被 驗 者 間	183.03	53		
부호일치여부(A)	61.36	1	61.36	21.93 **
集團內	123.67	52	2.38	
被 驗 者 內	756.97	270		
P/O正負(B)	323.60	1	323.60	137.70 **
AB	3.87	1	3.87	1.65
B×集團內	122.09	52	2.35	
극단성(C)	11.29	2	5.64	7.98 **
AC	14.44	2	7.22	10.17 **
C×集團內	73.36	104	.71	
BC	108.73	2	54.37	61.78 **
ABC	8.13	2	4.07	4.63 *
BC×集團內	91.46	104	.88	

* P<.05, ** P<.01.



도 7. 관계의 극단성 요인에 따른 正的 및 負的 P/O 관계별,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BC 상호작용)

조건들 사이의 차이는 正的 關係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는 유의하였고 ($t = 5.38, df = 26, P < .01$),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는 유의치 않았으며 ($t = 1.81, ns$), 극단성下와 上 사이는 유의하였다 ($t = 7.01, P < .01$).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서 負的 關係에서의 조건들 사이의 차이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는 유의치 않았고 ($t = 1.00, df = 26, ns$),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는 유의하였고 ($t = 3.91, P < .01$), 극단성下와 극단성上 사이도 유의하였다 ($t = 4.74, P < .01$).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서의 조건간의 차이는 正的 關係에서의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는 유의하였고 ($t = 6.64, df = 26, P < .01$),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도 유의하였다 ($t = 3.55, P < .01$).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서의 조건간의 차이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는 유의치 못했고 ($t = .68, ns$),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는 유의하였다 ($t =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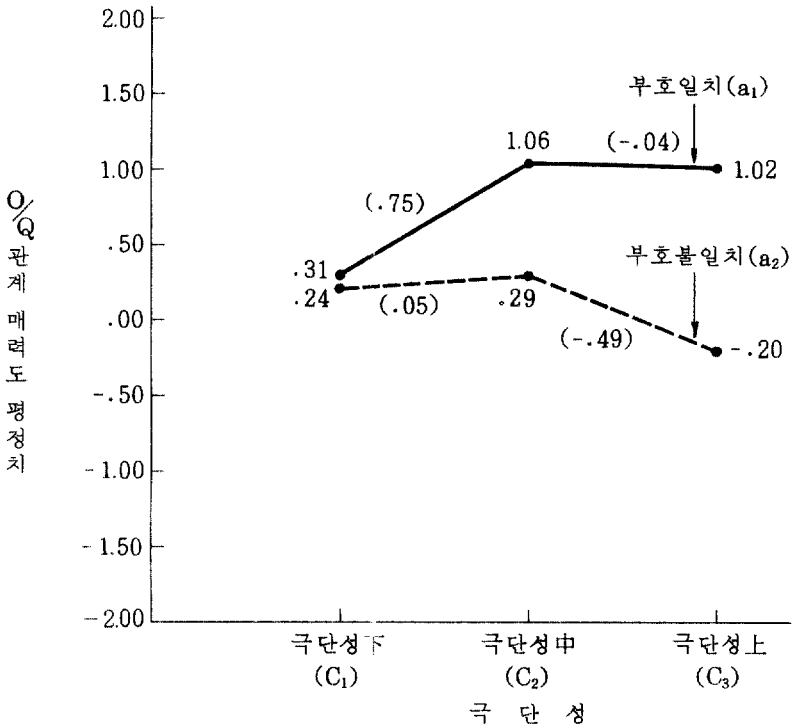
도 8. 관계의 극단성 요인에 따른 正的 및 負的 P/O 관계별,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BC 상호작용)

$P < .01$).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실험의 가설은 극단성이 下와 中 사이에서 보다는 中과 上 사이에서 주로 지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어떤 조건들에서는 負的 關係의 영향은 극단성이 높은 쪽에서 주로 나타나고 正的 關係의 영향은 극단성이 낮은 쪽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 시사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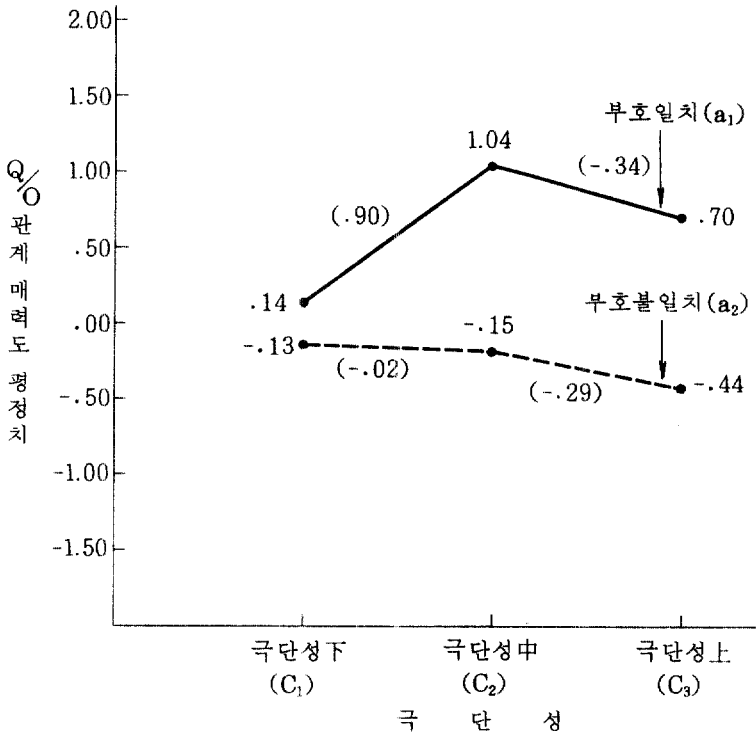
부호의 一致-不一致 要因과 극단성 要因의 상호작용효과 : 본 실험의 두번째 가설, 즉 P/O와 P/Q 관계들의 부호의 불일치는 일치보다도 P/O 관계의 극단성이 증가될수록 O/Q 관계와 Q/O 관계의 매력도들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의 평정치들에 대한 이들 두 要因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들

要因들의 상호작용효과는 두 관계의 매력도 평정치들에서 모두 유의하였다(각각, $p < .01$). 상호작용의 양상은 도 9와 도 10과 같이, O/Q 관계와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 모두에 대해서 부호일치 조건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上 사이에서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더 감소되거나 비슷하였다. 한편, 두 매력도 평정치들에 대해서 부호불일치 조건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에서는 약간 증가되거나 감소된 반면에,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되었다.

O/Q 관계와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의 조건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 부호일치 조건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는 유의하였으나($t = 5.88, df = 26, p < .01$), 극단성中과



도 9. 관계의 극단성요인에 따른 부호일치와 부호불일치 조건별,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AC 상호작용)



도 10. 관계의 극단성요인에 따른 부호일치와 부호불일치 조건별, Q/O관계 매력도 평정치(AC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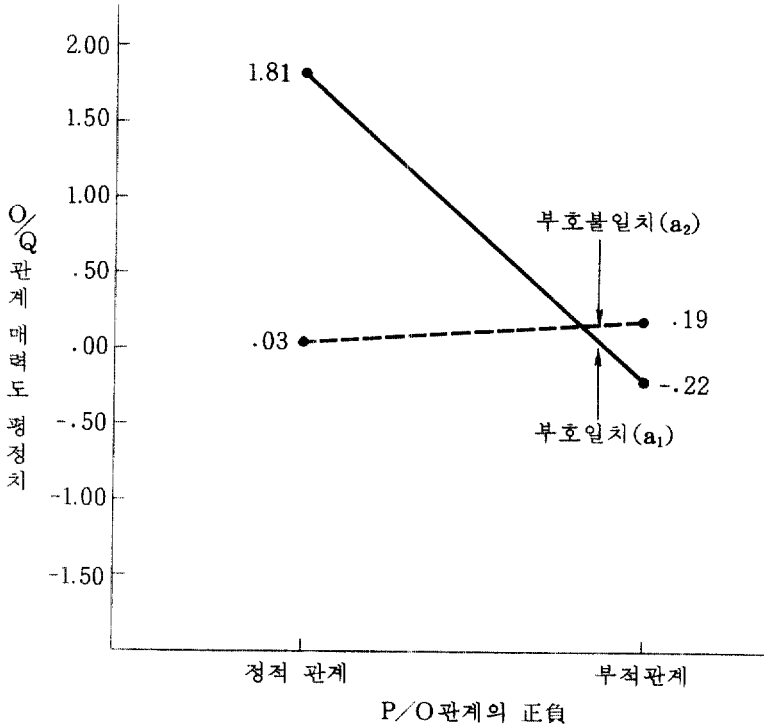
극단성上 사이는 유치지 못했고($t = .43, ns$), 극단성下와 극단성上 사이는 유의하였다($t = 6.11, p < .01$). 한편,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서 부호불일치 조건에서의 조건간 차이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는 유의치 못했고($t = .57, ns$),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는 유의하였고($t = 2.63, df = 26, p < .05$), 극단성下와 극단성上 사이도 유의하였다($t = 2.42, p < .05$).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서의 조건간 차이는 부호일치 조건에서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는 유의하였고($t = 7.76, df = 26, p < .01$), 극단성中과 극단성上 사이도 유의하였으며($t = 2.28, p < .05$), 극단성下와 극단성上 사이도 유의하였다($t = 4.10, p < .01$). 한편,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의 부호불일치 조건들에서의 조건간 차이는 극단성下와 극단성中 사이($t = .21, ns$), 극단성中

과 극단성上 사이($t = 1.57, ns$) 및 극단성下와 극단성上 사이($t = 1.79, ns$)에서 모두 유의치 못했다.

O/Q 관계와 Q/O 관계 매력도 평정에 미치는 P/O 관계의 극단성의 영향에 관한 부호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 사이의 평정치 변화의 양상과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호일치 조건에서는 극단성이 낮은 쪽에서 정적 정보우월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부호불일치 조건에서는 한정된 자료(즉, O/Q 매력도 평정치들)에서만 극단성이 높은 쪽에서 부적 정보우월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실험의 가설은 한정된 자료에서만 지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 실험의 태도일치-불일치 요인과 극단성 요인의 상호작용양상과 차이가 있으며, 균형이론들에서 세 관계의 성질을 고려치 않은 부호의 일치여부에 근거된 균형과 불균형의 구분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균형이론과 직접 관련된 균형요인의 효과는 O/Q 관계와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서 부호일치 조건에서는 정적인 매력을 예언하고 부호불일치 조건에서는 부적인 매력을 예언한다. 두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 대한 부호일치-불일치 요인의 효과는 매우 유의하였고, 부호일치조건은 정적 평균치를 보였고 부호불일치조건은 부적 평균치를 보였다. 따라서 균형효과는 유의해서 균형이론(Heider, 1958)은 앞 실험의 P/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와 같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부호일치나 태도일치 조건들의 정적인 수치가 부호불일치나 태도불일치 조건들의 부적인 수치보다도 훨씬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부호일치나 태도일치가 부호불일치나 태도불일치보다도 더 균형으로 향한 힘이 강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서 균형이론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나타내 준다.

또한, O/Q 관계의 균형패턴을 보면, 도 11에서와 같이 정적 P/O 관계에서는 부호일치와 불일치 조건 사이의 차이가 컸으나 부적 P/Q 관계에서는 차이가 작고 중앙으로 수렴되었다. 따라서, Newcomb(1968)의 부적 P/O 관계의 삼원적 상황들이 비균형되어 있다는 이론은 O/Q 관계의 평가에서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P/Q 관계의 평가에서는 부적 P/O 관계에서 일치와 불일치 조건들의 평정치들이 중앙으로 수렴되지 않아서 Newcomb(1968)의 이론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Newcomb(1968)의 이론이 삼원적 관계에서 P와의 직접



도 11. P/O관계의 正負要因에 따른 태도 일치와 불일치 조건별, O/Q관계 매력도 평정치(AB 상호작용)

적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P와의 간접적 관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부호불일치 조건에서는 P/O관계의 正負에 관계없이 비슷한 O/Q 관계 매력도 평정을 보인 반면에($t = 1.33, df = 26, ns$), 부호일치 조건에서는 정적 P/O관계와 부적 P/O관계의 차이가 컸다($t = 8.31, p < .01$). 이와 같은 결과는 앞 실험에서의 태도 일치와 불일치 조건들에 대한 P/Q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에 관한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삼원적 상황들에서 어떤 관계의 매력도 평정이 부호나 태도의 불일치보다는 부호나 태도의 일치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균형이론은 태도 불일치나 부호 불일치보다도 태도일치나 부호일치에 더 큰 무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져

야 될 것이다.

綜合的 論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부정 정보우월효과에 관한 傾斜差異模型은 P-O-Q의 삼원적 상황에서의 빠진 관계의 正負判斷에 적용시켜서 검증되었다. P/Q 판단에서는 정적 P/O관계보다도 부정 P/O관계가 관계의 극단성의 증가에 따라 더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본 연구의 첫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부정 특성으로 간주되는 태도불일치가 정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태도 일치보다도 P/O 관계의 극단성의 증가에 따라 더욱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도 지지되었다. 또한 O/Q 관계와 Q/O 관계의 판단에서도 부정 P/O 관계는 관계의 극단성의 증가에 따라 매력도 평정이 급격한 감소를 보여서 첫째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O/Q 관계의 판단에서 P/O와 P/Q의 부호불일치조건이 부호일치 조건보다도 특히 극단성이 높을 때에 더 큰 변화를 보여서 두번째 가설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정 관계나 특성이 정적 관계나 특성보다도 더 큰 경사로 변화된다는 본 연구의 가설들이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경사차이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정 P/O 관계나 부호나 태도의 불일치 조건들에서의 극단성에 따른 매력도 평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P/O 관계의 극단성이 낮을 때 보다도 극단성이 높을 때에 훨씬 더 크게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즉, 극단성이 낮은 쪽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적은 반면에, 극단성이 높을 때에는 변화가 훨씬 더 컸다. 이러한 結果들은 부정 정보우월효과가 관계나 특성의 극단성이 낮을 때보다도 높을 때에 주로 작용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극단성 증가에 따른 관계나 특성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차 함수적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기본 가정도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부정 정보우월효과는 그 극단성의 증가에 따라 평가에 正的으로 加速되는 (positively accelerate) 양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正的 P/O 관계나 태도나 부호의 일치 조건들은 극단성의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자료에서 일정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

은 정적 특성이나 관계의 영향은 극단성의 증가에 따라 일차 함수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負的 情報優越效果가 관계나 특성의 극단성이 높은 쪽에서 주로 작용되며 극단성이 낮은 쪽에서는 비교적 미약하게 작용된다는 결과는 평가의 중간점, 즉 0 點을 고려할 때에 더 분명해지고 있다. P/O 관계의 극단성에 따른 P/Q 관계, O/Q 나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들 모두에서 부적 P/O 관계나 부호나 태도의 불일치 조건에서는 특히 극단성이 낮은 쪽에서 예상과는 달리 正的 評定值를 보였고, 정적 P/O 관계나 부호와 태도의 일치조건에서 보다도 덜 極化된 평정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극단성이 낮은 쪽에서는 부적 정보우월효과보다도 정적 정보우월효과가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주장은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 대한 극단성에 따른 정적 P/O 관계의 영향과 부호일치의 영향에 관한 자료들에 의해서 또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어떤 특수한 조건하에서는 관계나 특성의 극단성이 낮을 때에는 부적 정보우월효과보다는 정적 정보우월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균형이론은 삼원적 상황에서 두 부호의 일치나 태도의 일치는 타인에 대한 태도나 나머지 한 관계의 부호가 정적으로 되며 두 부호의 불일치나 태도의 불일치는 타인에 대한 태도나 나머지 한 관계의 부호가 부적적으로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부호의 일치나 태도 일치는 부호의 불일치나 태도의 불일치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시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P/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는 태도일치조건(1.44)이 태도불일치조건(-1.07)보다도 더 極化된 평정치를 보였으며,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는 부호일치조건(.93)이 부호불일치조건(-.03)보다도 더 극화된 평정치를 보였고, Q/O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도 또한 부호일치조건(1.20)이 부호불일치조건(-.81)보다도 더 극화된 평정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Heider(1958)나 Newcomb(1968)의 이론들이나 기타의 수학적 균형모형들에서도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삼원적 상황들에서 태도일치나 부호일치 상황들이 태도불일치나 부호불일치 상황들보다도 균형으로 향한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태도나 부호의 일치가 불일치보다도 균형으로 향한 힘이 더 강한

것은 P/O관계의 正負要因과 태도나 부호의 일치-불일치要因 사이의 상호작용효과에서도 나타났다. P/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는 정적 P/O 관계의 태도일치와 불일치 상황들 사이의 평정치 차이가 부정적 P/O 관계의 태도일치와 불일치 상황들 사이의 평정치 차이보다도 더 컸다. 또한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는 정적 P/O 관계의 부호 일치와 불일치 사이의 차이가 부정적 관계의 부호 일치와 불일치 사이의 차이보다도 더 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우리는 정적 P/O 관계의 상황들이 부정적 P/O 관계의 상황들보다도 균형으로 향한 힘이 더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태도일치나 정적 P/O 관계의 상황들이 태도불일치나 부정적 P/O 관계의 상황들보다도 균형으로 향한 힘이 강하다는 상기의 결과들은 인간이 부정적 상황들보다는 정적 상황들에서 인지적으로 더 세분된 변별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앞의 실험 I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적 정보우월효과는 사람들이 부적이거나 처벌을 주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회피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정적이거나 보수를 주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변별적 접근이나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해석에서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다. P/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 태도일치조건은 P/O 관계의 正負에 따른 차이가 컸지만, 태도불일치조건은 P/O 관계의 正負에 따른 차이가 매우 미약하였다. 또한, O/Q 관계 매력도 평정치에서 부호일치조건은 P/O 관계의 正負에 따른 차이가 컸지만, 부호불일치조건은 그 차이가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정적 관계나 특성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부정적 관계나 특성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그 성질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II의 자료와 흥 대식(1980a)의 자료들은 O/Q 관계의 판단에서는 Newcomb(1968)의 이론을 다소 지지하고 있다. 즉, O/Q 관계의 판단에서 負的 P/O 관계의 상황들에서는 균형과 불균형의 구별이 미약하고 중간쪽으로서의 평정치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正的인 타인들에 대해서는 타인의 태도나 행동을 확신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負的인 타인들에 대해서는 확신감을 갖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아마 敵의 意圖나 태도는 친구의 意圖나 태도보다 더 예측하기 곤란한 인간의 사회적 상황들의 특징을 반영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智煥. 他人에 대한 好惡 強度가 三元的 關係의 愉快度 知覺에 미치는 영향. 成均館大學校 學生指導研究, 1983, 5, 80-91.
- 尹鎬允. 韓國語形容詞의 好惡度測定, 性格特性을 나타내는 形容詞들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文理大 學報, 1970, 16, 113-116.
- 趙兢鎬. 印象 形成에 서의 負的 情報의 優越現象. 韓國教育, 1974, 1, 50-60.
- 趙兢鎬. 刺戟의 극단성과 自我關與水準이 印象形成에 미치는 영향. 韓國心理學會誌, 1976, 2, 51-59.
- 趙兢鎬. 對人評價次元의 二元性에 관한 研究 : 好惡性和 和親性. 서울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2.
- 洪大植. 認知的 不調和가 情報選擇에 미치는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1971, 1, 128-138.
- 洪大植. 他人과 對象의 호오강도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 1980(a).
- 洪大植. 他人에 대한 好惡強度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1980, 1, 19-27(b).
- 洪大植. 對人關係의 均衡에 對한 새로운 理論的 接近. 社會心理學研究, 1982, 1, 44-77.
- Abelson, R. P., & Konouse, D. E. Subjective acceptance of verbal generalizations. In Feldman S. (Ed.), *Cognitive consistency*. Academic, 1966.
- Anderson, N. Y. Averaging versus add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2, 1-9.
- Anderson, N. H. Lik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9, 272-279.
- Atthowe, J. M. Jr. Types of conflict and their resolution: A reinterpre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60, 59, 1-9.
- Birnbaum, M. Morality judgments: Fests of an averaging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72, 93, 35-42.
- Byrne, D.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ttitude similarity. *Journal of Abnormal*

- and *Social Psychology*, 1961, , 62, 713-715.
- Byrne, D. Attitudes and attraction. In Berkowitz L.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1969.
- Byrne, D., & Nelson, 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topic importance. *Psychonomic Science*, 1964, 1, 93-94.
- Cartwright, D., & Harary, F., Structural balance: A generalization of Heider's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956, 53, 277-293.
- Clore, G. L., & Byrne, D. A reinforcement-affect model of attraction. Huston T. L.(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Academic Press, 1974.
- Feather, N. T. Acceptance and rejection of arguments in relation to attitude strength, critical ability, and intolerance of inconsistenc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6, 127-136.
- Feather, N. T. A structural balance analysis of evaluative behavior. *Human Relations*, 1965, 18, 171-185.
- Feather, N. T. The prediction of interpersonal attraction. *Human Relations*, 1966, 19, 213-237.
- Feather, N. T. A structural balance approach to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effects. In Berkowitz. L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67, vol. 3, pp. 99-165.
- Fishbein M.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1963, 16, 233-239.
- Hamilton, D. L. & Zanna, M. P. Differential weighting of favorable and unfavorable attributes in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es in Personality*, 1972, 6, 204-212.
-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1958.
- Hodges, B. H. Effect of valence on relative weighting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30, 378-381.
- Jones, J. M. Meanings of "most acceptable" and "most objectionable". *Psychological Reports*, 1969, 24, 915-921.
- Jones, J. M. Attitudinal valence and semantic differential potency scales.

- Psychological Reports*, 1971, **28**, 991-994.
- Jordan, N. The asymmetry of liking and disliking: A phenomenon meriting further reflection and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1965, **29**, 315-322.
- Kanouse, D. E., & Hanson, L. R. Jr. Negativity in evaluations. In Jones E. E. et al.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General Learning Press, 1972.
- Kaplan, K. J. On the ambivalence-indifference problem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A suggested modification of the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Psychological Bulletin*, 1972, **77**, 361-372.
- Katz, L. Effects of differential monetary gain and loss on sequential two-choice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64, **68**, 245-249.
- Kogan, N., & Wallach, M. A. Risk taking as function of the situation, the person, and the group. In *New Directions in Psychology III*.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7.
- Lichtenstein, S. Bases for preferences among three outcome be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65, **69**, 162-169.
- Miller, N. E. Experimental studies of conflict. In Hunt J. (Ed.), *Personality and the Behavior Disorders*, Vol. 1. Ronald, 1944.
- Miller, N. E. Liberalization of basic S-R concepts: Extensions to conflict, behavior, motivation, and social learning. In Koch S.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2. McGraw-Hill, 1959.
- Miscovici, S. Attitudes and opinions. In Farnsworth, P. R., McNemar O., & McNemar Q. (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14, Palo Alto, California: Ann. Rev., 1963.
- Myers, J. L., Reilly, R. E., & Taub, H. A. Differential cost, gain, and relative frequency reward in sequential choice sit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61, **62**, 357-360.
- Newcomb, T. M. Interpersonal balance. In Abelson R. P.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Chicago: Rand McNally and Company, 1968, pp. 28-51.
- Rettig, S., & Pasamanick, B. Differential judgment of ethical risk by cheaters and

- noncheat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9**, 109-113.
- Rettig, S., and Rawson, H. E. The risk hypothesis in predictive judgments of unethic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3, **66**, 243-248.
- Rettig, S., & Sinha, J. B. P. Bad faith and ethical risk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1966, **43**, 275-286.
- Rokeach, M.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Jossey-Bass, 1968.
- Rosenberg, M. J., & Abelson, R. P. An analysis of cognitive balancing. In Rosenberg M. J. et al.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Haven, Conn.: Yale Univ. Press, 1960, pp. 112-163.
- Sherif, M., & Hovland, C. I. *Social judgment: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New Haven, Conn.: Yale Univ. press, 1961.
- Sherif, M., & Sherif, C. W. *Social psychology*. New York: Harper & Row, 1969.
- Sherif, C. W., & Sherif, M., & Nebergall, R. E.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The social judgment approach*. Philadelphia and London: Saunders, 1965.
- Warr, P. Inference magnitude, range and evaluative direction as factors affecting relative importance of cues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30**, 192-197.
- Wellens, A. R., & Thistlethwaite, D. L. An Analysis of two quantitativ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Psychological Review*, 1971, **78**, 141-150 (a).
- Wellens, A. R. & Thistlethwaite, D. L. Comparison of thre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1, **20**, 82-92(b).
- Wiest, W. M. A quantitative extension of Heider's theory of cognitive balance applied to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Monographs*, 1965, **79**, No. 14 (Whole No. 607).

ABSTRACTS

Slope Difference Model of Negativity Effects in Evaluation

Hong, Dae-Shik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 slope difference model of negativity effects in evaluation was presented. The model was tested in the context of completion of missing relations in the P-O-Q triadic situations. In general, the hypotheses that the negative P/O relation and attitude and sign dissimilarities will show greater slope than the positive P/O relation and attitude and sign similarities were supported.

It was suggested that the effect or slope of negative relations or traits will show positively accelerated curves, while the effect or slope of positive relations or traits will show linear function. It was also suggested that people will show greater attention to the degrees of positivity than to the degrees of negativity. The data showed that the forces toward balance of positive P/O relation and attitude and sign similariti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negative P/O relation and attitude and sign dissimilarities in triadic situations.